

Discipleship training is
my top priority



제자훈련으로 체질이 확 바뀌었습니다

광주사랑의교회 박희석 목사

글 · 박순중 목사

박순중牧사는 총신대학교, 동신대학원 및 선교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사랑의교회 부교역자와 국제제자훈련원 지역 네트워크 담당으로 섬기고 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지금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체질 변화'를 제일 먼저 꼽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체질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좋은 모델이 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와 4년 동안 함께한 후, 성도들의 입에서 "교회가 확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광주사랑의교회(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한계에 대한 대답이 되라!"

사랑의교회(옥한흠 목사)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박희석 목사가 광주사랑의교회(구 소망선교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것은 1999년 11월. 서울 대형 교회에서 보장된 사역을 접고 지방 소도시 교회로 내려간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나도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박 목사의 소망 때문이었다.

박 목사의 광주사랑의교회 부임이 확정되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였던 옥한흠 목사는 사랑의교회와는 다른 환경을 가진 교회로 부임해 가는 박 목사의 목회가 수월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훈련의 한계에 대한 대답이 되라."고 당부했다. 역시 저학력층이 많고 고령화된 지방 소도시 교회

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박 목사의 계획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부임하는 조건으로 제자훈련 목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자훈련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교인들은 솔직히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목사를 데려오고 싶은 생각에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십 년 동안 책이라고는 한번도 들여다 본 일이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거의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큐티는 고사하고 독후감이나 성경 읽기 숙제조차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자훈련 못하겠으니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한 집사님을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밤새 설득했던 일입니다."

"체질 변화는 의식 전환으로부터"

막상 부딪혀 본 지방 소도시 교회의 현실은 상상외로 너무나 힘들었다. 박 목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저희 교회는 그야말로 이벤트로 이끌어 가던 교회였습니다. 여전도회가 14개나 있었고, 일년에 헌신 예배를 100번 이상 드렸으며,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모습이 '그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보다는 자신이 핵심에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자훈련만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목사는 성도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제자훈련 시간마다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훈련생들에게 "건강한 제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2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훈련생들의 반응은 여전했다. 신년예배 때, 자신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사역에 표시해서 내라고 종이를 나눠줬다. 나중에 수거한 종이를 살펴보니 제대로 표시가 된 것은 단 한 장도 없었다. 행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던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사역에의 동참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2001년 가을, 이런 성도들의 의식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대각성전도집회였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훈련은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대각성전도집회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전도란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성도들의 의식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은 대각성전도집회 때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훈련 때 제가 강조한 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건 백 마디 말로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이지요. 실제 눈으로 보는 교훈 말이예요."

대각성전도집회는 분명 전도에 대해 패배의식을 갖고 있던 광주사랑의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다.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자 자

연스럽게 순모임(다락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늘 같은 순모임에서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재미를 맛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새롭게 부흥한 순모임 사역을 통하여 박 목사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목회의 동역자’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던 성도들은 이제 스스로 목사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의 의식을 바꾸겠다고 박 목사의 계획이 적중한 것이었다.

“의식을 바꾸면 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자 곧이어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훈련생들은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눈이 빠지는 것 같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다가는 꼭 죽을 것 같다.”며 제자훈련에 참석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러나 제자훈련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성도들은 태도부터 달라졌다. 우선 이들은 제자훈련에 오는 것을 즐거워했다. 가능하면 제자훈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어떤 집사는 제자훈련 기간 중 차가 완전히 폐차되는 대형사고를 당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 몸은 머리카라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보면 제자훈련 중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이라며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었다. 제자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업 때문에 손님들에게 술 접대를 해야만 했던 어떤 집사는 “제자훈련을 하고 나니 술자리에서 술잔을 권하는 내 모습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며 모든 술 접대를 끊었다. 그 때문에 귀한 고객들을 잃은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하지만 그 집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대가 지불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담담해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 마음이었다. 사실 박 목사의 부임 초기에, 성도들은 예배가 끝나면 순식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버렸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더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를 할 뿐이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부임할 당시에 이미 교회가 전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그 반대 측, 그리고 중립으로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방하고 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 성도들끼리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냉담했던, 아니 경계의 눈초리로 서로를 지켜보아야만 했던 교회. 그러나 제자훈련은 이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경계심의 벽조차 무너뜨렸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이런 분위기는 주일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만나면 이야기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예배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모르고 서로 포옹하고 인사하느라 정신없는, 성도 간 교제가 충만한 교회로 바뀌었다. 박 목사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살리기 위해 주일 저녁 예배 때에는 축도 대신에 각자 10명씩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마친다.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볼 수 없었을 모습이다. 올해 사역훈련을 받고 있다는 김성관 집사의 이야기는 광주사랑의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보여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뒤부터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가장 기쁩니다. 그전까지 서로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이로 바뀌었으니까요. 정말 교회가 확 바뀌었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광주사랑의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침 2003년도 제자/사역훈련 입학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희석 목사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원래 평신도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의 전유물인 양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이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고 평신도들을 목회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목회에 동역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는 지금도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교회의 일이란 목회자가 직접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을 세울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란, 자신이 직접 사역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미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훈련시켜 사역에 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박 목사는 광주사랑의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에 반드시 자원을 받는다. 외국인노동자들을 섬기는 사역이나 교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후대안학교’ 사역도 모두 이 일에 미쳐 있고, 비전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한다. 박 목사는 교회 교육이나 성가대 반주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자원자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운다는 박 목사의 철학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없고, 성실히 임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맡은 일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박 목사는 한번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목사는 ‘세우는 사람’이지 ‘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의 신념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전까지는 사람을 품으며 가겠다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의 이런 믿음대로 광주사랑의교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 가고 있다.

“제가 여기서 4년간 제자훈련을 실시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훈련받은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앞으로 나이 들어 은퇴하면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제가 굳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감격하는 박희석 목사,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헌신하는 광주사랑의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자훈련이 분명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체질의 변화가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닐까? 제자훈련을 통해 4년 전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교회로 변한 광주사랑의교회. 오랜 습관과 전통에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제한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광주사랑의교회는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 